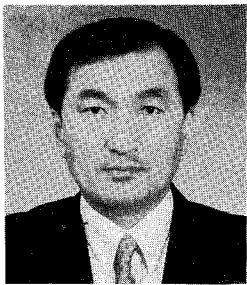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강 용 식

(버들축산 대표/본회 육계분과위원장)

1. 육계농가의 현실

계절은 또다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 날씨보다도 더 스산한 마음은 모든 육계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다. 지난해 이맘때, 올 겨울이 지나고 봄이오면 이 업계도 봄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였건만 일년이 지난 지금 앞날을 분간할 수 없는 절박함, 늘어만 가는 부채, 기본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생활고에 일부 농가에서 야밤도주 내지는 노동판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메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만이 우리 농가 앞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2. 불황의 원인은 인재(人災)

일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육계불황의 원인에 대해 그동안 업계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필자는 감히 이 불황의 원인을 인재(人災)라고 단언하고 싶다.

불황의 원인은 물론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사정의 악화에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많은 씨(PS, CC)를 생산하여 과잉생산을 초래한 업체 및 이를 방치한 정부 및 관련업계에 있다고 본다.

최근 원종계 감축 등 육계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스스로 자초한 불황을 정부에서 자금까지 지원하며 감축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실용계 병아리 렌더링 처리를 해오던 계열업체 및 종계·부화업체 등에서는 병아리 가격이 다시 상승하자 기존의

감축 약속을 파기하고 다시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이런 와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생산자들 밖에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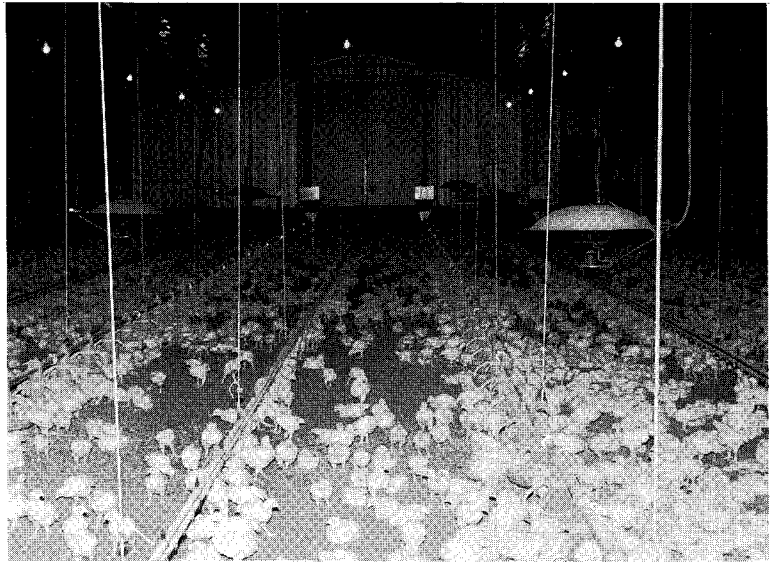
3. 대책

한마디로 대책을 찾기는 무척 힘들다. 또 이 시점에서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오히려 적자생존의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어떠한 일이든지 결과가 있고,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면 대책이나 해결방안을 쉽게 수립할 수 있을 텐데, 그 동안 수많은 모임과 대책, 방안과 함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지만 변한 것은 없고 업계 모두가 출혈경쟁만 더 심해지고 있지 않은가!

육계업의 속성상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수레를 그 누가 멈출 수 있단 말인가? 이 절박한 시점에 생산을 줄이면 도래되는 어음을 누가 결제한단 말인가? 세계적으로 육계계열화사업이 우리나라 만큼 성공한 나라도 없다고 본다. 1년반 이상 지속되는 불황에도 끄덕없이 버티고 있고,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은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이 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수는 없다고 본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냉혹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이 산업에 철저한 구조조



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4. 끝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육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뼈를 깎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그 동안 생계 시세에 따라 시세차액으로 수익만 올리고 털만 제거하여 도계품만 시장에 내다 파는 등 경쟁력 없는 경영을 하는 업체나 회사는 퇴출되어야 하겠고, 농가 또한 스스로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생존 전략 내지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더 이상 사육을 할 수 없으리라 본다.

다가오는 겨울이 우리 육계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다. 하지만 그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은 또 온다.

그 봄을 우리모두 웃으며 맞이할 수 있도록 환골탈퇴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것 같다.

그 새로운 봄을 기대해 본다. **양계**